‘역경보살’ 월운 스님의 삶, 한글로 새기다

봉선사, 10월 9일 경내 부도전서
‘부도탑 · 한글 추모비’ 제막식 봉행
호산 스님 “역대조실스님 뜻 이어
교구장으로서 역할 최선 다할 것”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참석내빈이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대강백 부도탑을 제막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옮겨 ‘역경보살’로 칭송받는 화엄종주 월운 스님의 삶·업적을 기리기 위한 부도탑과 한글 추모비가 건립됐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10월 9일 경내 부도전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대강백 탑 및 한글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부림 대종사,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혜승 대종사, 원로의원 두산일면 대종사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학장 정원 스님, 용문선원 선덕 월암 스님, 봉암사 선덕 무문 스님, 전 봉선사 주지 철안·정수·초격 스님, 어산어장 인묵 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 봉선사 수말사 스님들, 김남명 제25교구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내빈은 부도탑 제막 이후 헌다·헌화로 월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봉선사 회주 밀운 대종사는 “운허 스님 원적 이후 봉선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월운 스님께서 노심초사하며 사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스님 덕분에 지금의 봉선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신뢰를 바탕으로 70여 년간 함께해온 월운 스님을 늘 존경한다”고 추모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오늘은 제가 소임을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신없이 달려 왔는데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더욱이 이날 월운 스님 부도탑 제막식을 가져 더 뜻깊다”며 “교구장은 교구장의 역할, 강사는 강사의 역할, 신도는 신도의 역할, 학인은 학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역대조실스님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저도 교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산 스님은 부도탑과 한글 추모비를 조성에 석조분야를 담당한 이재순 대한석조 조각원장과 이백현 과장, 탑명과 한글 추모 비문을 쓴 최규삼 청관학당 강주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부도탑에는 월운 스님의 영욕사리와 유골, 침향옥, 추모비 동부식판, 전강제자들의 향나무도장을 비롯해 사진자료 15만 컷과 동영상, 음성파일, 역경파일 등 1948년 출가에서부터 2023년 입적까지 스님의 75년 기록이 담긴 외장하드와 USB가 함께 봉안됐다.

월운 스님의 헌신과 자비를 기리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잇는 추모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는 “생전 월운 스님을 찾아 뵐 때면 항상 작은 불을 키고, 글을 쓰고 계셨다. 흐트러짐 없는 그 모습은 스님의 지혜와 덕 때문”이라며 “큰스님 은덕을 잘 기려 봉선사 문도 화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도를 대표해 전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월운스님선양회장)은 “월운 스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복이었다”며 탑비를 조성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불교복지 선도 성운 스님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10월 2일 노인의날 기념식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이사장 성운 대종사가 노인복지 발전에 30여 년간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성운 대종사는 10월 2일 서울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사진〉

성운 대종사는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은 80년 넘는 인생과 70년 넘는 수행자의 길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출가 수행자가 세속의 훈장과 칭찬에 연연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제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은평구민 분들과 삼천사, 인덕원 등에서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의 헌신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김가령 기자



“환경오계 실천하는 ‘환경보살’ 되겠습니다”

10월 5일 제1회 환경수계법회
30여 명 불자 동참, 실천 다짐
무주상보시 실천 나눔페스타도



환경오계를 수지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환경오계수계법회’에서 30여 명의 불자들이 진정한 환경보살로 거듭났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10월 5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불교환경연대 창립 23주년 기념 환경오계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원경 스님, 지도위원 현종 스님을 계사스님으로 한 수계법회에는 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환경연대 2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수계법회는 불자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보살로 거듭나는 자리였다. 수계자들은 △천지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생명임을 알고 존중해 모시는 삶 △경쟁·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닌 서로 살리는 삶 △많고 빠른 것보다 작고 적은 것을 추구하는 단순 소박한 삶 △깨끗함과 편리함이 분별임을 알고 적당히 불편하게 사는 삶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 등의 환경오계를 수지했다.

계사스님들은 “환경오계는 인간의 욕망을 제도화한 산업사회에서 벌어지는 기후시스템 붕괴, 생물종 다양성 파괴로 인한 생물대멸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환경보살이 돼 파국으로 질주하는 사회를 돌려 뭇 생명이 함께 행복한 정토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수계자들은 이제까지 삶에서 편리함을 위해 저지른 자연 파괴를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했다. 이어 장궤합장을 한 채 향으로 연비를 받고 계사스님들에게 수계증과 염주를 받았다.

수계법회에 앞서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불교의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환경 캠페인 ‘무소유나눔페스타’를 진행했다. 무소유나눔페스타는 시민들에게 기부 받은 의류, 생활용품, 도서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는 자원순환의 한마당이다.

불교기후행동 측은 “기부 받는 물품의 기준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접수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더욱 활발한 무소유나눔페스타를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이젠 모바일 신도증서 ‘선명상’ 가능”

조계종 포교원, 10월 10일
신도증 신행기능 확대 안내
호흡명상 · ASMR 등 체험도

선명상 동영상, 경전 E-book, ASMR 등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조계종 모바일 신도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10월 10일 조계종 모바일 신도증의 신행기능 확대 내용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신도증 소지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기존 모바일 신도증은 조계종 신도로서 상징적인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개편된 모바일 신도증은 신행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개발·배치했다.

신도증 메인화면에는 명상, 사찰의 소리, 경정, 부처님마음 내마음, 포교자료실, 사찰정보 등 6개 코너를 구성했다. 본인의 신도증은 언제라도 화면 하단 ‘신도증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상’ 코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동영상과 호흡명상, 자애명상 음성 가이드 안내가 제공돼, 함께 명상수행을 해볼 수 있다. ‘사찰의 소리’에서는 월정사 계곡 소리, 송광사 대나무숲 소리, 화엄사 범종 소리를 고음질 ASMR로 들으며 고즈넉한 산사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경전’에는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비롯해 ‘천수경’ ‘반야심경’ ‘아미타경’을 수록했다. E-book 기능을 담아 글자체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오디오 기능과 책갈피 기능도 탑재돼 언제 어디서나 경전을 독송할 수 있다.

포교원은 “이번에 개편한 모바일 신도증을 통해 새로운 신행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백양사서 단풍 즐기며 좋은 인연 만나볼까

‘나는 절로’ 7기, 백양사편
30대 미혼남녀 신청 가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다가오는 11월 2~3일 양일간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만남 템플스테이 가을 특집 ‘나는 절로, 백양사’를 개최한다.

이번 ‘나는 절로’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장성 백양사에서 진행된다. 또한 사찰음식 세계화에 진력을 다 하는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맛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나는 절로, 백양사’에 선정된 남녀 10쌍, 총 20명의 참가자들은 △백양사 참배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1대1 로테이션 차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가령 기자

국가유산수리기능
목조각 제 1728호
소 목 제 5972호
www.dongbangart.co.kr

동방예술원

사찰 내부불사 _ 수미단, 닫집, 목창호, 인등장, 현판, 주련

뉴욕 원각사 사찰 메모리얼 센터 제작





동방조형예술원 489-30-01174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612-18 010-7581-1010